

# 진영논리에 빠진 사회에 던지는 반성과 비판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 안국진 감독 '덧글부대'



안국진 감독 '덧글부대'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SNS를 하지 않은 이가 있을까 싶은 시대, 대중 미디어보다는 개인 미디어에 관심이 쏠리는 시대, 이른바 '밈'(mim·온라인 상의 유희현상)으로 새로운 문화적 공감, 소통의 표현형태)에 집중하는 시대다. 영화 '덧글부대'는 원작 소설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의 소설 '덧글부대' (2015)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 곧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 18대 대선까지 일어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당시 덧글부대는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 및 요원들이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및 진보 성향의 대형 커뮤니티에 침투해서 정부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

덧글정치가 지닌 대중조작의 폭력성... 관객의 기대는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필자 역시 그랬다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잔뜩 안고 영화관을 나섰다. 더불어, 생각할 거리도 잔뜩 있었다. 영화는 일단 대기업을 시선을 돌려놓았다. 임상진 기자(배우 손석구)는 만진전자의 중소기업 평가방해 및 기술탈취 사건을 취재·보도했다가 여론의 공격을 받는다.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 사장(배우 김동휘)이 자살하면서 임상진 기자의 기사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이 죽었다는 덧글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결과는, 대중으로부터 '기레기'라는 별명을 얻고 신문에 실리는 정적처분을 받는다. 크로스체크를 미처 못한 새내기 기자의 크게 사고 친 실수담으로 넘어갈 뻔한 것을 누군가 폐북 메시지에 글을 남긴다. '임상진의 기사는 오보가 아니었고, 온라인 여론을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만진 여론 조작팀의 횡포임을 제보하는 닉네임 찻맛캣(배우 김동휘). 그 과정에서 인터넷 소설가인 찻맛캣과 청년실업자인 짱뽕기(배우 김성철), 팽택(배우 홍경)이 꾸린 팀 알렙의 무시무시한 여론조작과 그로 인한 저격인물들의 몰락 일화를 듣게 된다.

이 기사로 복직까지 되고 진실을 파헤치려던 상진에게 돌아온 것은 또다른 거짓. 이제는 복직이 아니라 파면에 이른다. 상진은 진실 속에 거짓이 있다면, 거짓 속에도 진실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거짓 속에서 진실을 발굴, 덧글부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파헤친 진실을 전파하려 한다.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짜였을까. 영화는 진실과 거짓 사이를 얽치락 뒤치락 오간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바도 그랬다.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남성 동료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피해를 입은 경험이 슬했으니까. 진실이 오염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소문과 괴담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제도권에서 언론을 차단할수록 페이스스 가득한 '덩달이 시리즈'며 '최불암 시리즈' 속에 담긴 비판적 뒤틀림이 입에 오르내렸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보면, 온라인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보를 게이트키퍼하려고 끼어 있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판의식을 갖고 가짜 뉴스인지 팩트 체크를 한 후에 믿어야 한다는 새로운 미덕을 갖춰야 할 일이다.

어느 인터뷰에서 원작자 장강명은 "독자가 어느 것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모르겠다 할 만큼 불편하기를 바랐다"며 "제가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진영논리에 빠져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 자기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그런 건강한 회의주의가 없는 위험한 사회에 도달해 있다"는 데 있다 했다. 영화 '덧글부대'는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지는가. 온라인 여론전을 지켜보면서 한번쯤 의심해 보고 상상해 본 온라인 여론조작을 실감해볼 수 있는 영화다. 3월 27일 개봉.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기고 정영일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동강대 교수

# 총선을 넘어 대선을 생각해야 한다



때는 바야흐로 정치의 시간이다. 각당의 후보자가 확정되고 개소식과 출정식이 봇물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사활을 건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석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원색적인 비난과 난타전도 점입가경이다.

사상 유례없는 특정지역의 서울편입 발언에서부터 황당한 공약까지 유권자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도 정치혁신과 세대교체라는 미명아래 유례없는 공천 갈등과 극심한 분란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선거과정을 보노라면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서로 각을 세우면서 극한 대치정국으로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선거때마다 나오는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총선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여야의 주장이 전례없이 더 강하고 공세적이라는 것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거대양당의 나눠먹기식 병립형으로의 후퇴 시도조차 있었지만 현행제도가 유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다.

또한, 현실정치가 상대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에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 역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환경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이번 선거과정에서 재야 시민사회의 유능한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입성하여 정치개혁과 사회변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한 바 있다.

원로회의를 구성하여 야당인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연합정당을 구성하고 비례대표 시민후보의 석을 확보하여 이번 총선에서 민주세력의 승리를 위한 민주진보개혁진영이 일치단결하여 야권단일화를 통해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모든 진보정당의 단일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녹색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의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아쉬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정권심판이라는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합하여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후보를 사퇴하고 야권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은 민주진보진영 승리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히 칭찬할 만하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가까이 범민주진영의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하고 있으며 이는 총선 이후에도 이러한 구도는 유효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진다면 '멋있게 지고 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선승리를 생각해야만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 2가지는 '지민비조' 현상으로 이야기되는 조국혁신당의 돌풍과 영남 일부지역에서 진보당이 국민의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일부와 부산mbc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당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는 것이고, 울산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가 되어 당선유력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영남쪽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동반상승했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다.

아마도 진보당이 전국적으로 86명의 후보 중 박빙의 승부처인 수도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66명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고 사퇴한 대승적인 결단에 대한 영남민심의 반응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을 정도로 큰 이변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부산, 울산 등 영남은 변하고 있는데, '광주와 호남은 영원한 민주당 싹쓸이 판' 이 반복된다면, 광주와 호남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러다 대선 또 진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은 변하고 있는데, 광주와 호남이 변함없는 싹쓸이 판이라면 자칫 그 옛날의 호남 고립전략 망령이 또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총선을 넘어 대선 승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소탐대실! 눈앞의 1석을 더 채우려다 정작 큰 것을 잃어서는 안된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 팔을 잘랐다는 세종(갑)처럼 광주와 호남의 어느 한 지역구에서만이라도 민주당이 양보하는 전략적 선택과 배려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국민적 호응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또 한번의 호남 싹쓸이가 몰고 올 수 있는 반작용과 역풍에 대한 우려가 괜한 염심이 아니다.

차기 대선에서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이 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번 총선에서 '묻지마 민주당' 식의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몫.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영농철 일손돕기 동참해야 할 때

기고



이주은

농협구례교육원 팀장

봄이 왔다. 농촌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분주함이 시작된다. "모내기 철에는 아궁이 앞에 있는 부지깽이도 뚝뚝"은 속담이 있다.

이 시기 농촌은 막대기조차 바쁘게 움직여 할 만큼 도움이 손길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현재 시설농가에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계절별로 노동력의 수요 차이는 크다. 특히 봄과 가을철 일손 부족은 고질화 되고 있다.

국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업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식량난과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다다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농인력중개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시구직자 모집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영농철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개인과 기관의 영농철 일손돕기 참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영농철 일손돕기는 가까운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거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봉사단체 등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농철 일손돕기는 직접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손돕기를 위한 방편제들의 지역상품 및 서비스 구매 확대는 지역경제의 부가 수익 창출에 큰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

한 이해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즉, 영농철 일손돕기는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농업과 농촌의 진정한 공익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것일까. 이미 서구 선진국들은 농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독일), 농촌 지역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활성화(영국), 지역식재료와 문화유산 보존(프랑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식량 안보의 중요성도 재차 부각되었다. 결국 농업분야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생명과 환경보호, 지역문화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은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봄 영농철에는 많은 분들이 가까운 농촌을 찾아 일손돕기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